

# 3월의 안테나



## 80년도 소득표준율 확정발표

제 2의 세율이라고 하는 소득표준율이 발표되었다.

이 소득 표준율은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 결정시(推計決定時) 적용 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때에는 신고권장용으로 이 소득 표준율이 활용된다.

이 소득표준율은 소위 인정과세(추계과세) 때 사용되는 것이며 장부기장으로 실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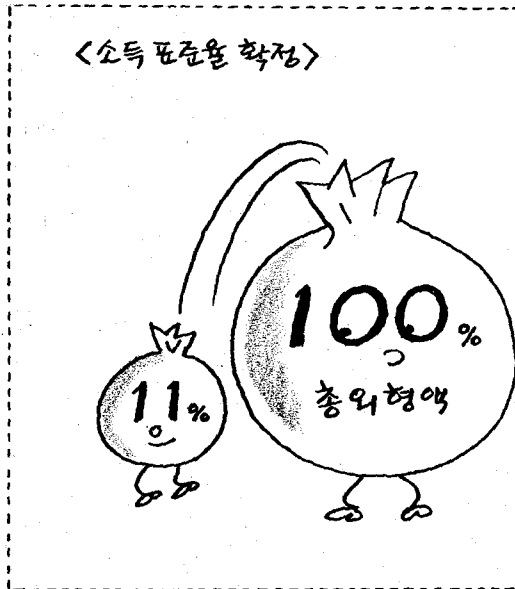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양계업자가 기장보다는 추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표준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소득표준율을 설명한다면 양계의 경우 80년도 총 외형액의 11%가 소득이 된다는 말이 된다.

그간 소득표준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79년에는 78년도에 비해 1.5% 하향 조정되었다가 80년도에는 79년과 같은 11%로 확정 발표되었다.

지금까지는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신규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등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80년도 사업분으로 모든 감면혜택이 끝나게 됨으로써 81년도 사업분부터는 소득표준율이 더욱 큰 뜻을 갖게 된다.

정부는 소득표준율의 기본율을 년차별로 이원화(二元化)하여 기장능력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부터 적극적으로 기장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세정흐름에 따라 양축가도 기록하는 양제로 점차 발전시켜 생산비도 절감하고 추계 과세로 인한 손실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연차별 기본율  
2원화 추진방향**

**1. 목 적**

가. 업종별로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영위자에 대한 소득 표준율을 우선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장 유도

나. 사업규모 이익의 반영

**2. 법적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 및

**3. 이원화율**

높은 기본율은 낮은 기본율에 20%를 加算함을 原則으로 함.

다만, 업종별 기본율 2원화 시행 1차년도에는 낮은 기본율에 10%를 가산함.

**4. 높은 기본율 적용구분**

가. 원 칙

개인사업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자와 법인

\* 연차별로 기준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할 것임.

나. 예 외

대리, 중개, 조선, 수탁판매, 보관업, 의료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용역 및 자유직업 중 기장이 용이한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

**5. 연차별 기본율 이원화업종**

**80년 이원화업종**

- 제조, 도매업
- 부동산 임대업중 일부
- 교육·의료·법무·회계·건축서비스업, 평가인업
- 대리, 중개, 조선, 위탁판매 및 보관업

**81년 이후 이원화업종**

- 소매업, 수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80년도에 이원화하지 아니한 업종
- 기장의 난이도에 따라 연차별로 선정 실시

80년도 소득표준율 기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축산업

종 목	구 분	적용구분	기 본 율			비 고
			78년	79년	80년	
낙농 및 육우사육			10	9	9	
양 돈			14	10	10	
양 봉			18	18	18	
기타 가축 및	양계		12.5	11	11	
가금사육	기타				12.5	허가 부화장(가금부화업) 적용

제조업

종 목	구 분	적용구분	기 본 율			비 고
			78년	79년	80년	
낙농품, 고기 가공 및 저장	연 유	6천만원미만	8.5	8.5	8.5	
		1천만원이상			9.3	
	분 유	"	6	6	6	
		"			6.6	
	기 타	"	12	12	12	
		"			13.2	
배 합 사 료		"	4.5	4.5	4.5	
		"			4.9	

도매업

종 목	구 분	적용구분	기 본 율			비 고
			78년	79년	80년	
가 축		6천만원미만	3	3	3	가축 및 가금
		6천만원이상			3.3	
고 기	고기부산물	"	3.5	3.5	3.5	식육부산물
		"			3.8	
	고 기	"	4	4	4	소, 돼지, 닭 등의 식육
		"			4.4	

## 난좌 개선 시급하다

계란이 채화되어 난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되고 또 쌓아 놓다 보면 자연 파란이 많이 나오게 마련이다.

우리가 외국에 비해 유통 과정에서 파란율이 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KIST 조사에 의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약 8%정도의 파란이 나오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파란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닭의 품종에 따라 난좌가 약할 수도 있고, 또 사료의 품질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질병 등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이런 것들 떠나서 대부분이 난좌 때문에 파란이 생기고 있어 시급히 시정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름철 플라스틱 난좌에 파란으로 인해 난액이 묻고 여기에 파리가 알을 낳고 하여 난좌에서 구더기를 보는 경우도 있게 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란을 불결한 식품으로 인식되게 하기도 한다. 이것 부터 여름철이 오기전에 고쳐야 되겠다.

현재 양계장에서 유통되는 난좌의 대부분이 계란 상인들의 것으로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난좌가 이용되고 있다. 이 플라스틱 난좌는 전염병의 매개 역할도 겸해서 하고있다. 플라스틱 난좌가 여러 규격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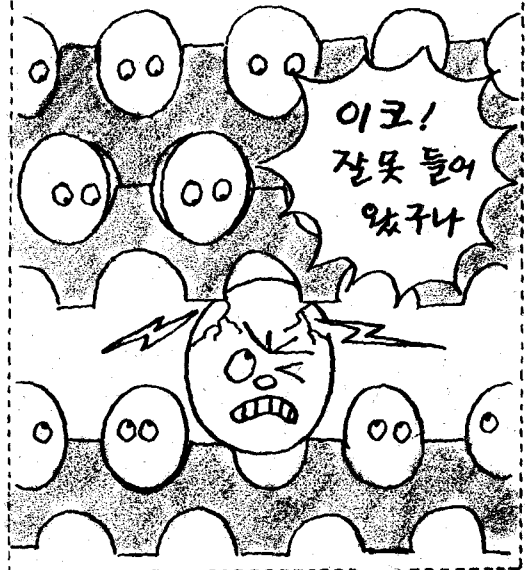
어 중란 대란 특란을 넣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으련만 최근에는 한가지 규격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난좌가 상인들이 알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점점 적게 만들다 보니 파란을 만드는 원흉이 되고 말았다.

소위 왕특란의 경우는 과거에 만들었던 난좌를 구해서 10개 내지 15개만 담아도 파란이 생겨 왕특란 하면 깨진알로까지 생각하도록 되어가고 있다.

한 난좌에 1개의 계란이 깨지면 난좌값이 되는데도 왜 파란이 많이 나오는 적은 난좌를 사용할까? 과연 알이 크게 보여야 소비자는 사가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 <왕특란의 수난>



과란을 줄이면 5~8% 계란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계란부터 상품의 품질과 규격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우리가 힘들여 생산한 물건을 과란으로 소모하지 않도록 난좌나 계란 포장의 개선이 시급하다.

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난좌를 생산한 업자는 망하고, 알만 크게 보이도록 과란이야 나오건 말건 알이 잘 들어 가지도 않게 난좌를 만들어야 팔리는 부조리 부터 새시대에는 없어져야 되겠다.

## 시급한 채란업의 경기회복

오래전 미국의 희극배우 보브호브 주연의 코메디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된 적이 있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를 배경으로 보브호브는 보험회사의 외판원으로 분장하고 나온다.

보험판매 실적이 부진한 보브는 항상 이때문에 고민하던중 우연히 술집에서거액의 생명보험을 한명 가입시켜 일약 보험 판매 실적 1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희색이 만연하여 의기양양하게 회사에 왔으나 회사에서 기뻐하는 것도 잠깐으로 끝나게 된다.

피보험자가 당시 서부악당의 두목이며 보안관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총구가 집중되는 제시제임스 이었기 때문이다.

염라대왕이 봐줄래야 봐줄수 없는 형편의 제시제임스가 만약에 죽게되면 보험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가 피한것을 뜻나기 외판원 보브호브가 걸려든 것이다.

이때부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제시제임스가 죽지 않도록 그림자 처럼 따라다니며 그를 경호하게 되며 권총 결투장에도 자기생명을 걸고 대신 나가는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작년의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빌어다쓴 돈을 갚지 못하고 은행관리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아왔다.

또 은행들은 회사채 발행의 보증이나 또는 대규모 용자로, 어느면에서는 기업보다도 더욱 그 기업이 부도나지 않도록 걱정하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다.

최근 양계업의 불경기로 사료외상대금이 증가 하게 되자 양계장이 부도나지 않도록 주거래 사료 공장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이제는 은행관리 기업체와 유사한 사료회사관리 양계장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이 생기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경우 사료공장들이 축협에 옥수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축협관리 사료공장이 나올것도 예상된다.

한번의 보험 가입 계약서 서명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온 정성을 쏟게 되듯이, 과도한 사료의 외상거래와 채란업계의 불황이 온 축산 관련 기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료공장관리 양계장이나, 축협관리 사료공장이 나오기 전에 채란양계업의 경기회복에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조금만 소비를 늘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두다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